

남원시, 미래농생명산업 선도한다

정부 주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 선정...사업비 200억 확보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이어 총 788억 확보...청년농 정착 지원 등

남원시가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남원시는 올해 농식품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및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지정에 이어 이번 공모사업에도 잇따라 선정되면서 관련 예산 총 78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한민국 미래 농생명산업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스마트팜 및 가공·유통

통시설 등 지역단위 스마트팜 확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공모 사업이다. 남원시는 전북에서 유일하게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130억원을 포함해 200억원을 확보했다.

기존 3년 단기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보완해 최대 10년(5+5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청년농의 초기 투자비용 경감과 임대경영에 따른 청년농의 안정적인 창업 정착을 유도한다.

한편 남원시는 올해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

단지 내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240억원, 취·창업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166억원, 유통·가공단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182억원, 폐열 활용·미래농업 복합문화공간)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지정 등 4개 사업에 선정돼 관련 예산 총 588억원을 확보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으로 청년농 유입과 첨단 농업 혁신을 통해 남원시를 미래 농생명산업의 전진후 기지, 스마트농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면서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완성을 통해 스마트농업 선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사랑상품권' 내년 발행액 800억원

올해보다 200억원 증액...매월 60억원씩 발행 방침

정읍시가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정읍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정읍사랑상품권을 8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발행액 600억원보다 200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발행 방식 또한 기존의 분기별 발행에서 월별 발행으로 변경해 매월 60억원씩 발행할 예정이며 특히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둔 1월과 9월에는 각각 100억원씩 발행액을 늘려 시민들의 소비 편의를 높인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으로 제한되고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원으로 정해졌다. 1월과 9월의 1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은 월 최대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상품권은 매월 1일 오전 8시에 판매를 시작하고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가맹점으로 등록 된 지역 내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읍사랑상품권 가입자는 지난 11월 말 기준 6만3000여명에 달하고 올해 발행된 상품권은 11월 초 조기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더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사랑상품권이 지역상권 소비 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 이웃돕기 쌀 1000kg 기부

상교동 취약계층 50세대에 전달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기부를 실천했다.

첨단방사선연구소는 지역사회 소외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정읍시에 방사선육종연구실에서 생산한 '나눔의 쌀' 1000kg(246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 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상교동 취약계층 5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방사선육종연구실은 2006년부터 방사선육종 기술을 활용해 신품종 벼와 콩을 개발하고 이를 농가에 무상 분양하며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초에도 자체 증식한 신품종 벼와 콩 종자 약 475kg을 전국 농가와 농업기술센터 등 67곳에 분양했다.

특히 방사선육종 기술로 개발된 신품종은 농가 보급을 확대하고 유용한 식물 유전자원을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연구소에서 연구·재배한 쌀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증해 오며 나눔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정병영 첨단방사선연구소 소장은 "연구소의 작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소장 정병영·왼쪽 두번째)는 지난 24일, 지역사회 소외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정읍시에 방사선육종연구실에서 생산한 '나눔의 쌀' 1000kg을 기탁했다. <정읍시 제공>

은 정성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여성농업인에 특수건강검진비

51~70세 여성농업인 360명 대상 1인 22만원

고창군이 지역 여성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의 농업 집행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내년에 예산 8000만원을 투입해 여성농업인 360명에게 특수검진비용 22만원의 90%를 보조, 지원하기로 했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5영역 10항목, 예방교육 4항목(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으로 구성돼 있다.

검진대상자는 1955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고창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2025년 1월 1일 기준 51~70세) 중 흡수년도 출생자가 해당한다.

특수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확인서를 지참하고 2025년 1월 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농약중독 등에 대한 검진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함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선정

고창군이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으로 군민 체감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군이 선정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최우수 신활력경제정책관실 이기영 주무관 ▲우수 농업정책과 송명경 팀장 ▲우수 사회복지과 김은중 주무관 ▲장려 안전총괄과 이상석 팀장 ▲장려 세계유산과 고하나 주무관 등 5명이다.

최우수상 공무원 이기영 주무관은 고창종합테마파크 리조트 6만6000여㎡(2만여평) 부지의 성토 공사 당시 공사업체 발주가 아닌 순성토 직접 매입방식을 도입했다. 공사발주시 소모되는 예산의 50%를 절감했고 휴단가 특혜시비와 반입물량에 대한 사전분쟁을 예방하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우수상 공무원 송명경 팀장은 농작물 손해보험 배상에서 제외된 '단호박 폭염피해'와 관련해 고

창군 주도의 농업재해 증명으로 이례적인 단일품목, 단일지역 농업재해를 인정받아 농가 피해보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우수상 공무원 김은중 주무관은 고창출신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자료 확보 차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2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했다. 객관적인 자료가 증명된 103명은 국가보훈부에 서훈을 신청했다. '의항 고창'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장려상 공무원 이상석 팀장은 폭염 집중 대응기간 양심냉장고를 운영해 군민 온열질환 및 폭염피해 예방에 선제적 대응했다.

장려상 공무원 고하나 주무관은 제51회 고창모양성제 '옛것에 MZ를 엮다' 슬로건 개발, 행사 컬러마케팅 도입 등으로 2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문케 하는 등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가족친화기관' 4회 연속 인증

출산·양육 지원, 탄력 근무제도 등 모범 운영

남원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2024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가족친화기관에 처음 인증된 후 유효기간 연장과 2차례의 재인증을 거쳐 오는 2027년까지 가족친화기관의 인증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탄력

적 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4회 연속 가족친화기관에 인증된 남원시는 특히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적인 문화조성의 공로로 2022년 가족친화 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이용률, 유연근무 활용,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의 운영 실적과 직원 만족도 조사 등 14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시는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지정해 정시 퇴근을 유도함으로써 일·가정의 균형 잡힌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직무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가정사 등 직원들이 겪는 다양한 정서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원 심신 치유와 활력 재충전을 위해 서도 깊이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